

Anatase형 TiO₂ 반덤핑 예비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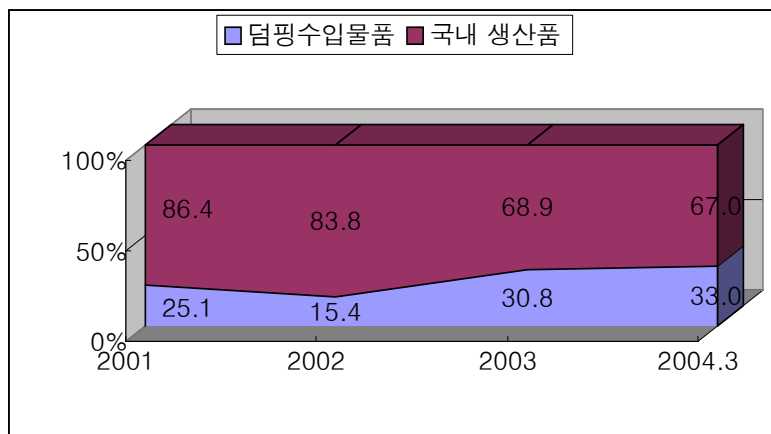
무역위, 중국산 유입으로 국산피해 확인 ... 3개월 후 최종판정 예정

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Anatase형 TiO₂의 덤핑의혹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8월26일 발표했다.

무역위원회는 2004년 8월25일 개최된 206차 회의에서 중국산 Anatase형 TiO₂에 대해 4.98-23.08%의 덤핑판정과 함께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예비 덤핑률만큼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.

Anatase형 TiO₂의 덤핑논란은 2004년 3월 국내 생산기업인 코스모화학이 중국의 Guangxi Pinggui PGMA, Zibo Cobalt Industrial, Guangxi Baihe Chemical가 생산한 Anatase형 TiO₂의 국내유입으로 국내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.

Anatase형 TiO₂의 시장점유율 추이



무역위원회는 3개월 동안 중국 공급기업과 국내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거친 후 2004년 11월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.

Anatase형 TiO₂는 플라스틱, 제지, 고무, 페인트, 잉크 등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2003년 시장규모 262억원 중 수입품이 30.8%를 차지하고 있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34/08/27>